

#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데포르마송 이미지

서 승 미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Deformation Image Expressed in the Modern Art to Wear

Seung-Mi Seo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3. 15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see through the aesthetic essence of the clothing as art,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cultural feature and body style in Postmodern Feminism. Also, this study will examine the aesthetic value in artistic meaning regarding a Déformational body image in visual art. Second, this study will analysis the formative character of Modern Art to wear which expressed unfixed body style, followed by the change of Postmodern Feminity, as a Déformation image. This character will be categorized by Expansion, Grotesque, Pleasure, and Virtuality.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is study.

Expansion expressed in modern Art to wear created intentional structure of the form, and intentionally presented refusal of body existence through disembodied. Grotesque expressed refusal and deviation of women's ideal body style, which is defined by mannish discourse, very grotesquely. Pleasure pleasantly presented free emotion through an intentional transformation like distortion or imbalance of the body. By paradoxically reproducing women's virtual body as other unfixed female identity was expressed visually through virtuality to embody post-gender.

Key words: déformation(변형), expansion(확장성), grotesque(기괴성), pleasure(유희성), virtuality(가상성)

### I. 서론

21세기 새로운 사과의 패러다임은 예술과 디지털에 대해 열린 세계의 추구라는 새로운 조형관을 요구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의상을 예술활동의 매개체로 차용하거나 담론의 텍스트로서 의미전달 하면서 의상을 조작, 변형하거나 설치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의상언어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

의상의 미학적, 예술적 가치가 강조되고 기호학의 등장으로 의미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예술의상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현대 예술에서 논의되는 신체에 대한 담론은 신체가 생물학적 의미를 초월하여 사회 문화적 이미지를 내포하는 신체로 재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영향력으로 인

해 여성 신체의 새로운 표현, 즉 여성성의 담지체인 신체 이미지에 대한 표현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현대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성 담론에 의한 탈고정적 성 표현으로 기존의 이상적인 신체 양식에서 해체된 탈구조화된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형된 신체표현은 현대 예술의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의상을 담론의 텍스트로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제시한다. 특히 무감각한 현대인들에게 웃음과 공포, 현실과 비 현실의 결합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미적 가치의 다원주의적 현상은 현대사회의 내적 혼돈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근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예술의상에 있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데포르마송 이미지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신체 이미지 특히, 몸이 왜곡되고 변형된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와 관련하여 작품의 내적 의미와 조형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변화된 신체양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신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 즉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영향을 준 Jacques Derrida의 해체이론, 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 이론 등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신체에 구현된 의미와 현대 여성의 탈고정화된 신체 이미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형예술에서 나타나는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와 관련하여 예술적 의미의 측면에서 미적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대 예술의상에서 데포르마송 이미지가 어떠한 조형적 특징으로 표현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변화된 신체양식이 현대 예술의상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신체양식을 살펴본다.
2. 조형예술에서 나타나는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의 미적 특성을 고찰한다.
3.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데포르마송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연구의 대상 시기는 1980년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전개를 배경으로 20세기 현대 조형예술에서 나타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대 예술의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예술과 철학, 미학, 사회 문화 및 복식에 관한 다양한 국내 외 문헌과 선행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예술의상에 대한 시각적인 자료는 의상과 미술관련 전문서적, 의상 전시회 작품집, 인터넷 사이트 자료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1980년대는 포스트 구조주의, 정신분석학, 기호학을 수용한 문화적 페미니즘 시대로서 이를 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이라 한다<sup>1)</sup>. 그 당시 서구 페미니즘은 여성의 범주를 남녀의 차이에서 여성들간의 차이로 그 개념이 이동되었으며 여성의 정체성이 실재(reality, 모더니티)에서 재현(representation, 탈모더니티)으로 변화되었다. 즉 재현을 전제로 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성의 인위적 구성을 주장하는 정신분석학 페미니즘이 통합되면서 모던과 포스트모던, 실재와 재현간의 구도로 재구성되었다<sup>2)</sup>.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실재에 기반을 둔 여성 정체성이라는 고정된 범주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연출을 통해서만 여성 정체성이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일체의 이항대립과 자기 동일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여성에 적용하여 가부장적인 담론을 해체함으로써 구조적 모순과 타자로서의 여성성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즉 서구문화를 주도해온 남성중심의 이성주의적 담론을 해체하고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 문화적으로 재구성된 성(gender)으로서의 여성성을 비교정적 범주로 파악함으로써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이상적으로 구조화된 기존 여성 이미지의 탈고정화를 시도한다. 따라서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제적인 모던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에 대한 의식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여성 이미지의 표현방식과 신체 양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0세기말 선두적인 페미니스트 이론가이자 포스트모더니스트인 Danna Haraway는 페미니즘간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여성 정체성에는 수많은 균열이 존재하며 모든 여성들을 자연적으로 하나로 묶는 '생물학적 존재'란 없다고 주장한다<sup>3)</sup>. 따라서 페미니즘 이념은 단일한 체계가 아닌 다형적, 다주체적 이념으로 파악된다.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이론의 토대 위에서 논의 가능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특히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중에서 Jacques Derrida의 해체이론, 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 이론 등에 영향을 받아 여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변화된 여성성의 탈고정화를 시도한다<sup>4)</sup>.

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 이론은 어떤 절대적 의미의 근원이나 기초가 되는 모든 사고체계에 대해 해석의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통일성의 원리를 교란시켜 불확실성과 불안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지배문화로부터 소외된 비주류와 타자를 인정한다. 이처럼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안정된 근원을 해체하는 것은 이항대립이라는 이분법을 파괴하거나 부정하는 그의 비평적 작업에서 잘 나타나는데 Derrida에게 있어 어떤 주종의 관계를 내포하는 이분법적 사고자체는 오류로 인정된다.

이분법적 사고 자체의 무효화를 의미하는 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는 남녀의 이분법적 구조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에서 페미니스트들에게 짙은 호소력을 지니며 해체를 통해 여성-감성-축각-주변이 남성-이성-시각-중심의 하위라는 계급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sup>5)</sup>. 따라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적 시각을

통해서 남녀의 전통적인 성의 이분법적 경향을 해체하고 여성을 타자로서 새로운 신체변형을 추구함으로써 남성중심의 지배체제와 구조화된 여성성을 탈피한 탈고정화된 여성성을 제시한다.

현대의 신체 담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Michel Foucault는 몸에 가해진 권력의 방식을 통해 역사 및 그에 따른 인식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인류학과 사회학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그에 의하면 몸은 권력의 작용점이자 동시에 주체의 문제가 전개되는 준거점이기도 하다<sup>6)</sup>. 또한 몸은 일상의 관습들과 대규모 권력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몸의 생물학적 구조가 인간 주체의 능력을 결정하고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즉 성의 정체성은 고정되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분열될 수 있고 불안정한 것이라고 페미니스트들은 주장한다.

이처럼 Michel Foucault는 권력을 복합적, 전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그물 망과 같은 미시권력이라 규정하고 권력을 지식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였는데 그에게 지식이란 타자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며 타자를 규정하는 권력인 것이다<sup>7)</sup>. 그는 성에 대한 권력의 관계를 성적 담론에 의한 힘의 논리에 적용시켜 여성의 신체 양식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즉 신체와 사회적인 성(gender), 생물학적인 성(sex)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물이며 권력의 효과로 인해 재생산된다고 하였다.

정신분석학을 다루는 기본 입장을 물리적 세계가 아닌 상징의 세계로 보는 Jacques Lacan은 기의의 임의성과 비재현성을 주장하며 언어학이 정신분석학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신체의 성기(penis) 대신 상징적 남근(phallus)을 축으로 하는 주체성의 개념화 혹은 언어화 과정이다. Lacan이 남근이라고 칭하는 성차의 기표는 상징 질서의 가부장제적 구조-권력과 지배-를 보장하는데, 이는 부계사회의 법인 아버지의 위치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아버지는 프로이드에서처럼 생리학적 아버지가 아니라 남근에 의해 상징적으로 구현되는 아버지라는 이름, 즉 언어로 등록되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다<sup>8)</sup>. Lacan의

이론은 부계질서를 떠받치는 하나의 남성적 담론에 그치지만 성 주체성 획득이라는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구축된다는 비결정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의 관심을 끈다.

Jacques Lacan 이후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신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념화할 것을 주장하며 여성적 대립항은 이질성, 다원적 의미, 다원적 성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9)</sup>. 즉 여성성이 사회적 범주임을 인정할 때 성 개념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개념의 재현 가능성이 제시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의 여성적 대립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육체는 항상 문화적인 가공물로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중재된 것이며 그것은 대체로 이러한 텍스트 안에 은유적, 반자유적, 형태학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데카르트의 정신과 육체의 구분과 모든 이원론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육체는 통합되거나 범주화될 수 없는 것, 배제되었거나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으로서의 기능을 은유적으로 발휘한다<sup>10)</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론은 동시대의 다양한 담론들, 즉 해체이론, 권력이론, 정신분석학 이론 등에 영향을 받았으며 여성 정체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성의 탈고정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신체변형을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서양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관념론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여 이분법적 논리를 해체함으로써 지배문화로부터 소외당하던 타자로서의 여성을 중심부로 끌어올렸으며, 여성을 규정하는 미시권력의 훈육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신체양식을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인정함으로써 여성 신체 이미지의 탈고정화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신체 양식

몸의 담론은 20세기 후반으로부터 급속히 후기자본주의 문화를 지배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발흥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는 그 동안

철학의 주변부에 버려졌던 육체를 사유의 중심부로 불러들였으며<sup>11)</sup> 현대에도 몸에 대한 관심은 과거 여성의 몸에 대한 시대적 기호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간의 몸에 대한 담론은 계속화되고 있다.

Merleau Ponty에 의하면 몸적인 행동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며 모든 인식의 궁극적인 완성은 몸의 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리의 몸은 지각의 주체이며 몸을 매개로 하여 자연이나 사물 및 문화적 사물들과 함께 뒤섞여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육체란 정신을 표출하는 매개체라는 일반적 사유로부터 현상학자들은 몸 자체가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특히 Merleau Ponty에게서 몸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인간의 이성보다 몸을 중시하는 이론을 정립한다<sup>12)</sup>. 또한 그는 사람들이 다른 대상과 상호 작용할 때 신체가 기초적인 경험의 매개체로서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며 따라서 신체 이미지는 지각의 집합이나 하나의 연상구조가 아니라 형태를 통합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sup>13)</sup>.

한편 Simone de Beauvoir는 여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사회 문화적 구성물로 보았으며 페미니즘 이론에 있어 자아와 타자라는 철학적 범주를 젠더의 구분에서 적용하였다. 즉 여성은 타자/객체로 남성은 자아/주체로 구성된 체계 속에서 작동하는 성의 정치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타자는 내재성에 갇힌 채 육체의 형태나 기능에 의해 정의되고 규정되며 반면에 자아는 초월적인 것으로 상상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성에 대한 개념은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그대로 투사되고 있다. 모더니즘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출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의 몸과는 달리 지속적인 양가적 태도를 자아내는 요인이 되어왔다.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데서 여성의 몸은 미지의 힘을 갖는 자연의 일부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불안정성과 신비주의와 연결되었다. 이는 자연의 다른 영역들처럼 여성의 몸은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남성의 몸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문화적이고 체계적인 지배의 도구로 여겨졌다<sup>14)</sup>.

이처럼 과거 여성의 신체적 양식에 대한 담론은 사회적으로 몸을 통제하는 일종의 권력기제에 의해 그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성에 대한 신체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현대 여성의 신체 양식은 성 담론에 의한 탈고정적인 여성성과 기존의 이상적인 여성미를 변형 왜곡한 신체 이미지를 통해 여성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시각에 있어 여성은 기호의 자의성과 마찬가지로 비고정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여성을 구축하는 구조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여성성에 대한 개념을 탈고정화 시킨다. 이러한 신체 양식의 기호에 대한 탈피는 남성적 담론에 의해 구조화된 전형적인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이탈로서 억압으로부터의 여성해방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모더니즘 담론에 의해 육체라는 텍스트에 각인되는 여성은 언제나 육체에 침투한 언어 안에서 작동하는 관계적인 권력의 장에 의해 꾸며졌으며, 이는 위계질서, 단일 의미, 이성중심주의라는 초월적이고 외재화된 언어 속에서 그 자체를 표명하는 낯은 가부장적 권력의 담지체임을 간파하고 이러한 육체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여성성은 탈고정성을 획득하였으며, 이러한 여성성의 탈고정화를 위해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이미지화된 여성, 주물화된 여성의 신비를 이탈시키는 작업을 한다<sup>15)</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신체 담론에 대한 서구의 철학적 이론들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시대적 변화를 통해 현대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기존의 남성중심의 지배체계에서 구조화된 이상적인 육체적 양식에서 탈피하여 비분리적으로 해체함으로써 탈구조화된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제시한다. 이처럼 현대 여성의 탈구조화된 신체 이미지는 20세기 후반 조형예술 작품에서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출현되었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변형된 몸의 이미지는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전달하는 메타포로서 여성에 대한 기존의 환상을 부정하고 신체 양식을 변형, 왜

곡함으로써 여성성의 탈고정화를 보여주고 있다.

### III. 조형예술에서의 데포르마송 신체

현대 예술에서 데포르마송(Déformation)은 프랑스어로 라틴어의 'Desformation'에서 유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변형, 왜곡 등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sup>16)</sup>. 변형과 왜곡은 고대로부터 무의식중에 행하여졌는데 예술적 표현수단으로서 의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세잔느 이후, 특히 표현파(Expressionism)와 야수파(Fauvism)에 의해서 나타났다.

데포르마송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상의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아닌 의도적인 왜곡을 통한 주관적 표현방법으로서 변형으로 번역된다. 즉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나 조형의지가 데포르마송의 근본 요인이 되는데 근대 미술에서는 형태나 비례를 고의적으로 변형시켜 독자적인 조형질서를 추구하였으며 자연의 사실적 재현을 거부하고 주관적인 감정이 밀반침된 형태의 왜곡과 변형을 통해 새로운 조형적 시도를 하였다<sup>17)</sup>.

이와 같이 조형예술에서 데포르마송은 어떤 예술적 요구에 의해 변형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자연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 특정부분 또는 전체를 강조하거나 왜곡시켜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서 대상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킨다. 본격적으로 데포르마송은 근대에 이르러 사실주의가 부정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인간의 내적 의욕이나 감정을 중시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처럼 데포르마송은 왜곡(distortion)과 변형의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이러한 현상은 현대 조형예술에서 신체를 왜곡하고 변형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 예술작품에 등장하는 절단과 분해, 해체 등을 통해 파편적으로 변형된 몸의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있어서도 단일하지 않다. 현대의 신체는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변하는 환경적 신체로서 이전의 죽은 신체에 대해서 또는 해부학적 신체에 대해 신체를 통과하는 격렬한 감각과 인상이 부딪히며 변화하는

장으로서 극대화된 예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sup>18)</sup>.

특히 현대 예술영역에서 등장하는 신체 이미지는 정신과 분리되지 않은 존재자체를 대신하는 미적 주체로서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성 정체성의 고정관념을 거부한다. 따라서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는 여성의 이상화된 신체에서 탈피하여 성 정체성의 상징으로서 몸의 왜곡과 변형된 형태를 통해 비고정화된 몸과 의상의 표현양상을 제시한다.

예술작품에서 신체를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현상은 신체적 일탈을 통해 기존의 규범적인 것을 부정하고 일상적인 맥락에서 이탈하여 합리적인 주체로 인식하던 신체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분열 또는 분절시키는 것으로 이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동시에 쾌감을 표현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현대 조형예술에서의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 의도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기존 사회에 팽배해 있는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의 소외, 억압으로 인한 것으로서 여성의 신체왜곡을 통해 여성이란 열등하고 억압당하는 존재가 아닌 내재된 힘과 가능성을 지닌 위협적인 존재로 표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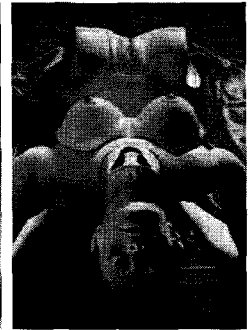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조형예술에서 몸은 또 다른 예술형식의 한 유형으로서, 즉 몸이 예술의 행위자로서 그리고 재료로서 혹은 생산자로서 등장한다. 또한 생산적인 몸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접근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신체의 이미지가 결코 단일하거나 일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 가운데 단절과 복합성, 불연속이나 유동성 등을 추구하는 현실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신체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과도 같다<sup>19)</sup>.

초현실주의 화가인 René Magritte는 여성의 신체적 유약함과 남성에게 침범당한 황폐한 공간으로서의 신체를 꿈과 무의식 속에서 전혀 생소한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초현실적 세계를 나타내었다. 그의 작품 『능욕, 1934』은 여성의 신체를 사람의 얼굴로 왜곡시켜 기괴한 형상으로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였는데, 초현실적인 무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작품은 웃음과 공포의 상실된 조화를 표현하며

비정상적인 가치의 전이로 인해 신비를 경험함으로써 모든 질서를 해체한다(사진 1). 이와 같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작가들은 현실의 우연성과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꿈과 같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데포르마송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사진 1> Magritte R. (1934),  
www.art.centerwor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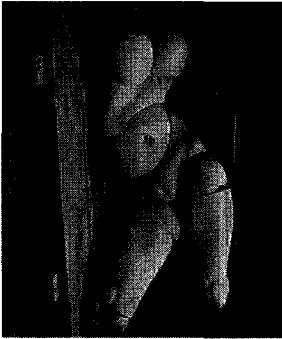
<사진 2> Cindy S. (1992),  
www.whitney.org

Cindy Sherman의 작품 (사진 2)에 등장하는 무생물의 인형은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일으키는 섬뜩함의 대상이며, 해체된 듯한 인형들의 모습과 노골적인 성의 이미지 표현은 가부장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표리부동한 성 의식과 성적 억압에 대한 저항과 도발의지를 담고 있다<sup>20)</sup>. 이러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적 표현에서의 데포르마송 신체는 여성의 신체를 실재와 다른 모습으로 변형, 왜곡시켜 여성을 단지 성적인 용도로만 인식하는 현대 사회의 모순된 성 의식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Hans Bellmer의 작품 인형 (La Poupée) 시리즈는 부서진 신체 조각들로 이루어진 사지분절과 절단된 것들의 집합체로서 여성 신체의 변형을 통해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왜곡시킴과 동시에 작가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성에 대한 집착과 공포를 비정상적인 신체 표현으로 제시하였다(사진 3).

이와 같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제안되는 데포르마송 신체는 정상적인 신체형태를 단절시키고 파편화함으로써 기괴하고 비정상적으로 배열하여 변형된 여성의 신체적 일탈을 통해 억압된 여성의 존재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즉 기존의 이

상적인 여성미를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지배체계에서 구조화된 여성성을 해체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를 재창조한다.



〈사진 3〉 Hans B. (1939-49),  
www.marvelligallery.com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신체에 대한 논의들, 즉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시각에서 전개된 여성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를 탈 신체로 인한 외부확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확장성과 왜곡되고 기형화된 신체변형으로 표현되는 기괴성, 과장되고 부조화된 형태로 표현되는 유희성, 타자로서 여성의 가상신체를 재현하는 가상성으로 구분하여 현대 예술의상에서 이러한 조형적 특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V.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데포르마송 이미지

현대 예술은 과거 이분화되었던 범주의 파괴와 미적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미지보다는 과장되고 괴이하며 변형된 모습으로 추(醜)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사회 의식구조를 대변하는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데포르마송 이미지는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 왜곡, 변형 등을 통한 불일치적 현상을 통해 웃음과 공포, 재미와 혐오를 동시에 유발하는 양면

적인 모순 구조로 이루어진 미적 개념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이 조형예술에서 표현되는 현대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성 담론에 의한 탈고정적 성 표현으로 기존의 이상적인 신체 양식에서 해체된 탈구조화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형된 신체표현은 현대 예술의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의상을 담론의 텍스트로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본 장에서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영향을 준 Jacques Derrida, Michel Foucault, Jacques Lacan의 이론적 담론에 근거하여 여성성의 변화에 따른 탈고정화된 신체양식을 데포르마송 이미지로 표현한 현대 예술의상의 조형적 특징을 확장성, 기괴성, 유희성, 가상성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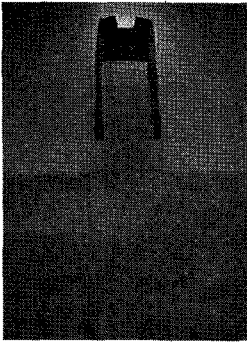
#### 1. 확장성

공간확장은 공간을 체험하는 인간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내부에서 외부로의 확장은 개방적인 형태를 가지며 그 내부의 핵을 중심으로 3차원의 방향, 혹은 보다 많은 차원으로 나가려는 물리적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내부는 외부로 확장되고 중심 공간은 주변으로 보내져 공간 역할은 더욱 확장된다. 또한 투명성을 통한 공간의 자유로운 상호관입은 내부와 외부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며 형태와 공간의 긴장된 상호작용으로 닫힌 형태를 대신하여 주변 환경으로의 역동적인 확장을 형성한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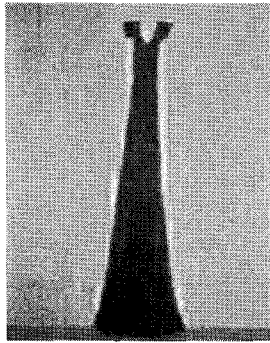
이와 같이 공간확장에 따른 하이테크 기술의 발전은 현대 예술의상에 있어 새로운 소재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인간의 신체 영역을 외부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간개념에 대한 새로운 미의식은 인간의 신체 변화를 시도하는데 외부로 확장된 신체 이미지는 기호 상징체로서 초월적인 현상을 체험하게 하며 유기적인 신체와의 결합을 통해 기능확장을 제시한다.

예술의상에서 나타나는 공간확장은 공간개념의 변화로 시공간의 영역이 새롭게 확장되는데 이는 공간의 긴장된 상호작용으로 인해 전체적인 구성형태의 의미체계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한다. 변화된 공간구성의 설치작품 형태인 Beverly Semmes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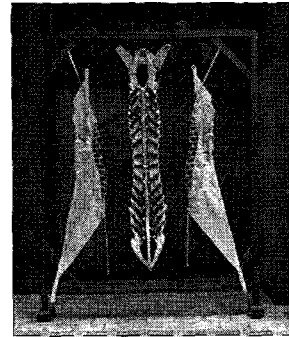
(사진 4)는 전시장의 바닥에 가득 펼쳐진 원피스 드레스의 거대하고 과장된 형태구성을 통해 주체와 객체가 공존하는 경계 상에서 신체의 부재를 통해 전체적인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호 상징체계로서 여성의 거대한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몸의 재현성에 대한 부정적 탈육체화를 통해 신체의 존재에 대한 거부 의도적으로 제시하는데, 탈신체를 표방하는 과장된 형태의 평면적인 작품들은 신체 담론을 확장된 공간 속에서 상징적으로 재현하여 다의적인 의미체계를 시각적으로 표상한다.



〈사진 4〉 Semmes B. (1996), Art/Fashion, p. 39.



〈사진 5〉 Emily B. (1994), Addressing the Century, p. 99.



〈사진 6〉 Barbara G. (1996), www.a-matter.com

Emily Bates는 (사진 5)에서 신체로부터 이탈된 머리카락(human hair)을 편물로 제작하여 심리적인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과장된 형태구성의 예술의상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작품형태는 벽에 걸려진 평면적인 작품을 통해 의상의 기능적 존재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실제로는 입을 수 없는 확장된 구성형태를 통해 탈신체를 표방하는 인간의 실질적 부재를 나타내고 있다.

예술의상에서 전체적인 형태에 의미를 제시하는 개방된 구성형태의 공간확장은 신체의 영역을 외부 확장으로 전환시켜 의도적인 형태구성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확장된 공간개념에 의한 극단적인 인체의 테포르마송 이미지는 기표로서 작품형태의 의미체계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며 탈육체화로 인한 가상세계를 역설적으로 재현하여 새로운 공간확장을 시

각적 형상으로 재창조한다.

이와 같이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예술의상의 조형적 형태는 공간구성의 형태로 재구성되어 시공간의 자유로운 상호관입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절대적인 공간 속에서 상대적인 공간으로의 확장을 시도한다. Barbara Graf는 (사진 6)에서 해부학적으로 재구성된 신체의 영역을 외부로 확장시켜 극단적으로 가시화 함으로써 탈신체를 표방하는 새로운 기호의 의미체계를 상징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개방된 공간구성에서의 테포르마송 신체 이미지는 형태와 공간 사이의 역동적인 확장을 형성하여 인간의 존재가치를 시각적으로 대상화한다.

## 2. 기괴성

기괴성이란 일반적으로 괴기한 것, 부조리한 것, 극도로 부자연스러운 것, 예술 상에 나타난 괴이하고 황당무계한 것을 뜻하며 그로테스크(grotesqu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Philip Thomson은 현대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지나침과 과장, 비정상성으로 제시하였는데<sup>22)</sup>, 여기서 그로테스크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시각에서 '섬뜩한, 기분 나쁜, 괴기한'의 의미를 가진 언캐니(uncanny)를 불러일으킨다.

현대 예술의상에서 나타나는 테포르마송 이미지는 여성 신체의 비천함(abjection)과 연관되어 왜곡된 신체 이미지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혐오스럽게 재현하는데, 이러한 기괴한 신체표현은 남성적 담론



에 의해 정의된 이상적인 여성의 육체적 양식에 대한 거부와 일탈로서 여성성의 탈고정화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유도한다. 즉 정형화되지 않은 신체의 기형적인 표현은 신체를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신체 이미지의 탈고정화를 유도하는데, 이러한 신체적 일탈을 통한 불안감과 공포감은 의상의 조형적인 형태를 통해 기존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해체를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상징적인 의미체계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sup>23)</sup>.

데포르마송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자체의 존재 가치와 위치의 불분명함은 여성의 존재범주에 대해 위협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은 이분법적 사고의 경계를 교란시켜 비천함을 생성하게 한다. Javier Perez는 (사진 7)에서 마치 새로운 의상을 통해 변형작업을 하는 것처럼 말털(horsehair)을 사용해 인간의 두뇌형상을 혐오스럽게 재현하였는데, 이러한 형태는 신체의 유해와 같이 여성의 내면자체를 애브젝트화시켜 존재에 대한 주체성의 불안정함을 공포스런 외관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 7〉 Perez J. (1995), 〈사진 8〉 Fabrice H. (1994), art & fashion, p. 54.      www.w4.siemens.de

이와 같이 현대 예술의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기괴한 신체왜곡은 유희적이며 비정형적인 형태를 통해 조형적 구성요소를 창조하는데 이러한 형식적 구조는 기형적인 형태를 유발하며 열린 공간구성에 의한 우연성과 중첩으로 신체의 형태개념을 의도적으로 해체하여 불확정적인 형태구성을 시

도하게 된다.

주체성의 상실과 경계의 모호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abjection은 종속된 여성의 불안정한 심리적 갈등을 위협적이고 두려운 공포의 존재로 기호화시키는데 이러한 형태는 (사진 8)에서 보여진다. Fabrice Hybert는 그의 작품을 의상조각의 형태로 제시하여 억압된 여성의 정체성을 위협적인 상징물로서 가시화 하였는데 이러한 형태는 비천한 신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여성 신체에 대한 데포르마송 이미지를 grotesque하게 재현한다. 즉 여성의 존재 가치에 대한 모호한 이미지를 기괴한 형태구성으로 왜곡함으로써 기호 상징체계로서 내면의 상징요소를 의미전달 한다.

이와 같이 예술의상에서 나타나는 기형적인 신체의 왜곡된 형태 변형은 육체적 양식의 탈고정화를 통해 신체 이미지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is)를 제시함으로써 비정형적인 형태구성을 의미체계로 대상화한다. Fergus Greer는 그의 작품 (사진 9)에서 왜곡된 형태의 기괴한 신체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연출하여 내면의 의미체계를 가시적으로 표상하였다. 다원적이고 의미의 모호성을 내포하는 이러한 기괴한 신체왜곡은 상징적인 추의 미학으로 재현되어 인공적인 심미적 외형을 극단적으로 재구성한다.



〈사진 9〉 Greer F. (1991), Addressing the Century, p. 76.

예술의상에 있어 새로운 형태 공간의 조형적 구성요소들은 전 존재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여

지 않고 내부의 반대적인 미시적 저항현상을 기호화시켜 인공적으로 노출하거나 외형을 혼란시킴으로서 기존의 정형화된 조형 형식을 왜곡하여 황폐화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예술의상은 신체의 일부분이 인위적으로 변형, 왜곡되어 비정형의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를 표출함으로써 기괴한 형태구성을 창출한다.

### 3. 유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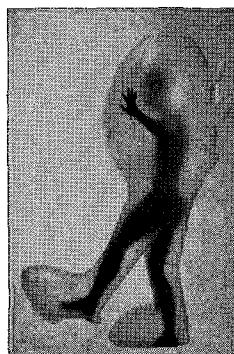
유희라는 개념은 어떤 외적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활동 그 자체의 흥미 때문에 일어나는 심신의 자유로운 발동이며 긴장을 필요로 하는 일에서 벗어나 원시적인 마음, 편안한 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과 쾌감, 우월감을 갖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처럼 유희는 심리적 이완(psychic release), 즉 자신, 상황, 사회 등으로부터 부과된 긴장감의 해소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는 처음에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나 그 두려움이 필요 없어졌을 때 웃음이 나온다는 것이다.

Schiller F.는 예술의 본질을 유희에 두었는데 웃음과 공포를 동시에 일으키는 유희는 의도적인 조작이나 대치, 왜곡 등이 조합되어 충격과 의외성을 유발하며 가학적인 웃음을 제시한다. 즉 유희로서의 예술은 살아있는 형식으로서 이것은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본질의 삶과 이성적 본질의 형식을 조화시키는 매개라는 의미에서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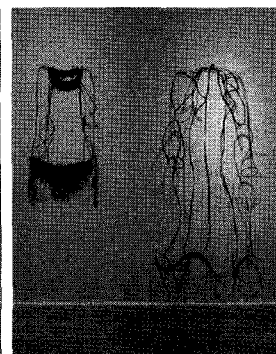
예술의상에서 보여지는 유희적인 작품은 이질적인 요소의 대립과 탈구성적 형태로 의도적인 부조화를 창출하는데 이러한 작품은 Maria Mechler의 작품에서 보여진다. 그는 (사진 10)에서 인간의 형상을 은유적으로 변형하여 내재적 상징을 표출함으로써 연극적인 과장된 효과를 유머러스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Caroline Broadhead는 (사진 11)에서 벽에 그림을 그리듯이 의상의 실루엣을 단순한 선으로서 이차원적인 의상조각(clothing sculpture)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작품은 유연성과 열린 개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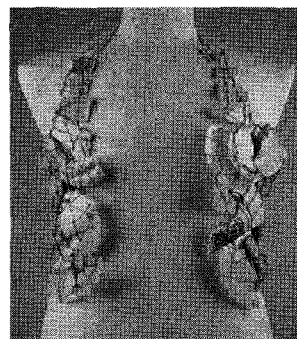
의한 미완성의 미학으로서 신체를 전제로 한 상징성을 넘어서 옷과 신체를 유리시킴으로서 실제 옷이 아니라 착용하는 목적과는 상관없는 상징적인 의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진 10〉 Maria M. (2001), [www.matter.com](http://www.matter.com)



〈사진 11〉 Caroline B. (1989), *Addressing the Century*, p. 66.



〈사진 12〉 Margiela M. (1989), *Addressing the Century*, p. 99.

이처럼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이질적인 요소는 부조화와 의외성을 유발시켜 유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난 위치전환으로 놀라움과 웃음을 전달한다. Martin Margiela는 (사진 12)에서 조각난 자기제품(porcelain)을 메탈릭 와이어로 불규칙하게 엮어 조끼형태로 표현하였는데, 이처럼 왜곡된 소재의 의도적인 데포르마송 이미지는 의외의 사물이나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으로 인한 회극적인 유머로서 유희적으로 표현되며 내부로부터의 해체작업을 통해 충격적인 웃음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현대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유희적인 데포르마송 이미지는 의도적인 조작이나 불균형과 같은 형태변형을 통해 정신적인 해방과 자유로운 감정을 외부로 표현함으로써 미의 형식을 파괴하고 균형미를 깨뜨려 해방감, 부조화, 불일치, 갑작스런 제시 등으로 인한 유희적인 효과를 제시한다.

#### 4. 가상성

가상성은 단순히 허구의 세계 혹은 상상의 세계를 구획 짓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를 통해 현실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방식을 상징하는 것이다<sup>24)</sup>. 즉 실제(reality)가 아닌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감각 가능한 것으로 시공 속에서 현실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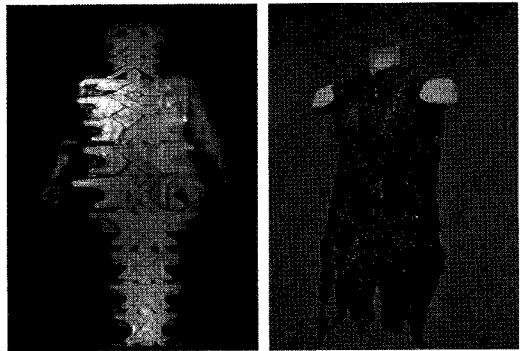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제안되는 탈고정적 신체 이미지는 기존의 여성미를 변형, 왜곡하여 가상성을 통해 억압된 내면의 심리세계를 데포르마송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이상적인 육체적 양식에 저항하는 반전을 시도한다. 따라서 예술의상에서 나타나는 가상성은 반증적 미의식이 합쳐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탈장르, 탈중심 현상을 함축하는데 이러한 왜곡된 탈구성적 형태는 이분법적 젠더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고 이질적인 여성성을 제시하여 극단적인 역할로 전복되는 데포르마송 이미지를 창출한다.

이와 같이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가상성은 탈고정화된 여성성의 데포르마송 이미지를 통해 일련의 여성 정체성을 가상적으로 상징화함으로써 전통적인 여성성을 전복하고 이분법적 성 역할의 모호함과 다원적 젠더, 다중 섹슈얼리티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가상성은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인간과 물질의 결합 등 가상의 가공적인 존재를 통해 포스트 젠더를 구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젠더의 개념을 해체하여 성적 정체성의 실존적 자유를 제공한다. Barbara Graf는 (사진 13)에서 인간 척추(spinal column)의 과장된 형태를 여성의 신체에 대입시킴으로서 무의식에 내재된 불안한 자아의식을 전복시켜 극도의 공상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가상 신체의 역설적인 재현은 타자로서 여성 내면의 상징

성을 은유적으로 암시하며 극단적인 반전으로 여성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대상화한다.

이와 같이 현대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가상적인 데포르마송 이미지는 여성의 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표현형식으로 은폐와 노출의 이중적인 양상의 혼합적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가상성을 통해 구속된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어 왜곡된 신체를 표현함으로써 이상화된 신체와 기존의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제적인 담론의 사회적 도덕적인 억압을 전복시킨다.



〈사진 13〉 Barbara G. (1996), [www.a-matter.com](http://www.a-matter.com)  
 〈사진 14〉 Sterbak J. (1987), *Art/Fashion*, p. 112.

예술의상에서 성적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변형된 신체 이미지는 (사진 14)에서 보여지는데 Jana Sterbak은 여성의 abjection을 표현하기 위해 식용 고기(flesh)를 기호매체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의 작품은 영혼을 위한 의상으로 열정과 유혹의 장소로서 여성의 신체를 매개체로 사용하였는데, 분해된 생고기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여성을 단지 남성의 성적 소모품으로서 식육과 관련시켜 표현하였으며 생고기를 여성의 신체와 동일시하여 비천한 존재로 대상화하였다<sup>25)</sup>. 타자로서 소외된 여성의 고뇌와 구속을 의미하는 이러한 가상의 신체 이미지는 역설적으로 전복되어 여성의 소모된 육체를 상징적으로 표상함으로써 새로운 주체로서 이질적인 가상성을 제시한다.

또한 Jan Fabre의 작품 (사진 15)는 의상조각의 유형으로서 설치미술의 성격을 지니는데, 수많은 곤

충들이 뒤덮고 있는 형태의 이 작품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징그러운 곤충들에 의해 두려움과 함께 여성을 타자로서 열등한 존재의 비천한 신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작품은 인간/동물, 현실/환상 등의 이분법적 경계를 없애고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불쾌감을 주는 존재 가치로 표현함으로써 탈고정화된 여성성의 가상 신체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재현한다.



〈사진 15〉 Fabre J. (1993),  
Art/Fashion, p. 213.

이와 같이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가상성은 여성의 이상화되지 않은 비천한 신체, 결핍되고 소모된 육체를 가상적으로 표상하여 억압된 상징아래 존재하던 열등한 위치의 여성 정체성에 대한 의미체계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며, 사회적으로 타부시되던 상징계를 위협함으로써 경계를 교란시켜 타자로서 여성성에 대한 담론을 기호로서 의미전달 한다.

## V. 결론

현대 조형예술에서의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는 의도적인 왜곡과 변형을 통해 정상적인 신체형태를 단절시키고 파편화함으로써 과장되고 모호한 비정형적인 형태를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탈고정화된 여성성의 표현형식으로서 여성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따라서 몸의 왜곡과 변형의 새로운 조형적 시도는 신체적 일탈을 통해 여성의

신체, 이상화된 신체에서의 탈피를 극단적인 역설로서 대상화한다.

본 연구는 현대 예술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송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이론적 연구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영향을 준 해체이론, 권력이론, 정신분석학 이론 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탈고정성을 획득한 여성의 변화된 신체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형예술에서의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와 관련하여 예술적 의미의 측면에서 미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현대 예술의상에 나타난 미적 특성 가운데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화된 여성의 신체양식을 표현하는 데포르마송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으로 확장성, 기괴성, 유희성, 가상성을 상정하여 이를 통해 탈고정화된 여성신체의 미적 측면이 예술의상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확장성은 탈육체화로 인한 신체의 외부확장과 새로운 소재와 유기적인 신체와의 결합으로 시도되는 기능확장으로 개방된 공간개념의 형태구성을 통해 시공간의 영역이 새롭게 확장되어 나타난다. 특히 신체 변형의 기능확장은 신체의 연장으로 유도되어 초능력적인 인공미의 절대적인 공간을 실현하며, 실재와 가상세계를 통한 영역확장으로 역동적인 형태의 신체개념을 창출하였다.

둘째, 기괴성은 섬뜩한, 괴기한, 모호한 경계, 이분법적 사고의 교란,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혹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것의 혼합, 과장과 극단, 신체의 왜곡과 변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 신체의 비천함과 연관시켜 비정형화된 신체형태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킴으로서 신체적 일탈을 통한 탈고정화된 여성성의 극단적인 형태변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유희성은 의도적인 부조화와 위치전환으로 이질적인 요소의 대립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며 신체를 유희적으로 변형시키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의외성을 유발시켜 내재적 상징을 표출하였다. 은유적으로 변형된 추상적인 조형물은 입체적으로 형상화되어 강조와 모순의 형태변형을 통해 유희적인 효과를 제시하며 균형체계가 파괴된 인공적인 형상으로

로 즉흥적인 조형성의 새로운 형태미학을 표현하였다.

넷째, 예술의상에서 표현된 가상성은 포스트 젠더를 구현하기 위해 타자로서 여성의 가상신체를 역설적으로 제시하여 전통적인 여성성을 전복하였으며,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반증적 미의식을 가시화함으로써 극단적인 반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주제로서 이질적인 가상성을 제시하여 이분법적 대립을 약화시키고 젠더의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탈고정화된 여성 정체성의 담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적 특징으로 데포르마송 이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대 포스트모던 시대의 변화된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이상적인 여성의 몸을 변형, 왜곡하여 탈고정화함으로써 이분법적인 성 정체성의 파괴와 기존의 구조화된 여성미를 탈피하는 여성해방을 표현한다. 이처럼 전형적인 여성 신체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일탈을 표현하는 데포르마송 이미지는 현대 예술의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비정형적인 신체표현으로 몸을 해체함으로써 기존 여성 이미지의 탈고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담론의 텍스트로서 예술의상의 조형적 특징으로 데포르마송 신체 이미지를 상징하였으며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탈고정성을 획득한 여성의 신체 양식이 현대 예술의상에 있어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려는 의지로 인해 데포르마송 이미지의 비정형적인 신체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예술의상의 다중화된 표현형태들과 미적 가치로서 심층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홍희 (1997). 미국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6.
- 2) 조주현 (2000).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서울: 또 하나의 문화, p. 259.
- 3) Haraway, D., 민경숙 역 (2002).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서울: 동문선, p. 155.
- 4) Chris, W., 조주현 역 (1997). 여성해방 실천과 후기구조주의 이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29.
- 5) 김홍희 (1994).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월간미술, 8, pp. 165-167.
- 6) 이정우 (1993). 미셀 푸코에 있어 신체와 권력. 문화과학, 4, 서울: 문학과학사, p. 96.
- 7) 김홍희. 앞의 책, p. 167.
- 8) 김홍희 (1992).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방향 모색을 위한 페미니즘 연구. 미술세계, 9, p. 30.
- 9) Madan, S., 김해수 역 (1996). 알기 쉬운 자끄 라캉. 서울: 도서출판백의, pp. 196-199.
- 10) Elizabeth, W., 정경호·박찬부 역 (1997).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p. 505.
- 11) 양해림 (2003). 현상학과의 대화. 서울: 서광사, p. 138.
- 12) Werner, S. (1998). *Deutsche philosophie in 20. Jahrhundert*, München: Beck, p. 41.
- 13) Entwistle, J. (2000). *The fashioned body: Fashion, dress and modern social theor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p. 55.
- 14) 최현숙 (1999).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
- 15) Conboy, K. & Medina, N. & Stanbury, S., 고경하·김대환 역 (2001).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의 상품화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 서울: 한울, p. 19.
- 16) Jose, P., 박순철 역 (1990). 초현실주의. 서울: 열화당, p. 28.
- 17) 안연희 (1999). 현대미술사전. 서울: 미진사, p. 96.
- 18) 이수균 (1999). 몸과 미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13.
- 19) 위의 책, p. 10.
- 20) 이주현 (1998). 미술로 보는 20세기. 서울: 학교재, p. 63.
- 21) 서승미 (2004).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의 텍스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3.
- 22) Philip, T., 김영부 역 (1986). *The grotesque*.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 21.
- 23) 서승미. 앞의 책, p. 115.
- 24) Lévy, P., 전재연 역 (2002). 디지털시대의 가상현실. 서울: 궁리, p. 222.
- 25) Rebecca, A. (2001). *Fashion, desire and anxiety*, N.Y.: I.B. Tauris, p. 87.